요즘 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기획르뽀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쇼윈도우 —압구정동을 가다

자본주의 소비문화에 젖은 욕망의 끝자리

허풍빰의 쾌락을 찾는 오렌지족들이 불나비처럼 모여드는 저녁 7시경의 압구정동 거리는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쇼윈도우」라고 일컬었던 한 시인의 말처럼 돈으로 가능한 모든 편리함과 화려함이 거리를 꽉 메우고 있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그랜져, 포텐샤, 로얄 살롱 등 국산차가 압구정동 거리에서는 이미 국민차 수준이고, 벤츠, 볼보, 머큐리세이블, BMW, 폴크스바겐, 아우디, 푸조, 포르세 등 외제차를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외국의 소비문화와 대중문화를 맹목적으로 쫓는 오렌지족들에게 '욕망의 해방구' '쾌락의 평등지대'로 일컬어지는 성개방풍조는 필수적인 덕목이 된다. 국민학교 때부터 해외스키여행을 다녔고, 해외에 조기유학간 친구를 한두명쯤은 갖고 있으며, 집에 설치한 위성안테나를 통해 노골적인 일본 민영방송을 늘상 봐온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 본격적인 오렌지족의 대열에 들어설 때쯤이면 말초적인 쾌락을 쫓는 천박한 상업문화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감각을 갖추게 된다.

압구정동 까페에서 만난 C군(23세)은 "중형차를 끌고 로데오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젊은 남녀들은 십중팔구 하루밤 상대를 낚으러 나온 사람들이다. 이곳에선 쾌락을 쫓는 면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 실제로 나이트클럽에 가보면 40% 정도는 여자들의 부킹제의로 이뤄진 쌍들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제 없이 터져나오는 해방된 이러한 욕망은 끊임없는 자극을 원하고 압구정동을 더욱 악취나는 육욕(肉慾)의 거리로 만든다. 실제로 일부 오렌지족들 사이에서는 사우나→로바타아게→나이트→호텔로 이어지던 기존 코스가 안마시술소→로바타아게→요정이나 룸살롱→호텔행처럼 더욱 향락적으로 바뀌고 있다.

오렌지족들의 차는 흰색이 월등히 많고 대부분 창문을 검게 선팅해두었다. 흰색차가 많은 것은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그들의 취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정색 일색인 부모들의 차가 아닌 자신들의 차임을 과시하기 위한 까닭이다. 고급 승용차에 요란한 사진이나 스포츠클럽 안내그림 등을 붙여 놓은 색다른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내 차'임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들이다.

창문을 짙게 선팅하는 이유는 차안에서 이뤄지는 온갖 애무와 카섹스에 다른 사람의 침범을 받지 않겠다는 거절의 표시이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스쿠버 터보가 한때 오렌지족들의 인기를 모으기도 했지만, '실내가 좁아 카섹스하기에 불편하다'는 말이 나돈 이후부터는 돈 없는 오렌지족이 몰고 부렀던 일화는 오렌지족의 씀씀이가 70년대 미국의 바니걸스클럽에서 질펀하게 놀았던 박동명의 수준에 결코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돈'이 만들어낸 '신흥귀족'답게 돈과 쾌락이 넘쳐흐르는 자신들의 땅에 자신들의 문화를 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침범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실제로 외제 스포츠카와 고급 승용차들이 빽빽하게 주차해 있는 서울 강남 영동대로변 주택가에 자리잡은 A나이트클럽 앞에서는 20대 후반의 회사원들이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건장한 청지족들은 하루 저녁 술값이 1백만원대에 이르고 하루 외박비용이 수십만원인 고급요정이나 룸살롱을 찾게 되고, 결국엔 쾌락의 마지노선인 히로뽕에까지 손을 대게 된다. 히로뽕 공급자들은 처음에는 히로뽕을 탄 술을 마치 서비스인 것처럼 공짜로 마시게 하지만 일단 중독되고 난 후부터는 3~4회 분량을 10만원 정도에 판다.

하루 용돈이 몇 십만원인 오렌지족들에게 10여만원 하는 히로뽕 가격이야 부담이 되지 않지만, 몸은 급속도로 망가진다. 몸에서 약냄새가 나고 살이 빠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어가고 눈동자가 늘 붉게 충혈될 정도면 사실상 오렌지족도 못된다. 아부리 돈이 많아도 그 번쩍한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를 갖추지 못하면 A급 오렌지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렌지족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돈이 많아야 합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실제로 '물좋은 여자들을 삐리삐리(차를 타고 여자를 꼬시는 것)한 후엔 어느 동네에 시느냐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이때 우물쭈물하는 여자들은 남자족에서 삔지(거절)를 놓습니다. 남자를 꼬시기 위해 강북에서 원정온 갱족여자들은 대부분 베지밀가정(콩가루집안)의 바람난 여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서로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는 개방된 의식을 가진 신세대 여자들을 원하지 남자의 돈에 혹해 달려드는 불나비같은 여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압구정동에서 자란 진짜 오렌지족들만이 우리들의 독특한 문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양아파트에 산다는 박모군(21세)의 말이다.

그러나 고급 승용차를 훔쳐 오렌지족 행세를 하다가 얼마전 강남경찰서에 구속된 전병선(25세)씨가 수사관에게 털어놓은 고백은 '자신들은 부를 보장받은 특권계급'임을 당당히 밝히는 오렌지족 박군의 말이 얼마나 많은 성실한 젊은이들을 혼돈에 빠뜨리는가를 엿보게 한다.

전씨는 자술서에서 "어린 시절을 너무나 가난하게 보낸 나로서는 영동에 살고 있는 내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부러웠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차가 있어야겠기에 차를 훔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실제 전씨는 그랜저, 소나타, 포텐샤, 머큐리세이블 등 고급 승용차를 훔쳐 바꿔타며 여자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삐리삐리한 경우 삔지를 놓은 여자가 단 한명도 없었고, 일본에 근무하는 외교관 아들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그날 즉시 호텔에까지 직행할 수 있었다"고 수사관에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전씨의 고백은 '태어난 신분

왜곡된 상업문화가 난무하는 도덕불감지대

병든 우리사회의 모습이 키워낸 부산물일뿐

다니는 자전거같은 자가용이 되어버렸다는 말은 오렌지족의 세태를 정직하게 한다.

재색 포텐샤에 앉아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홍대입구에서 만난 김모군(22세)은 "우리들은 구시대적인 도덕이 쾌락의 발목을 잡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사람은 결국 즐기기 위해 일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즐기기만 해도 좋을 만큼 부자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즐길 뿐이다"라고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오렌지족 김군이 말하는 '일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부자의 수준 또한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실제 지난해 C나이트클럽에서 얻린 가면무도회에서 '최고의 현섬보이'로 뽑힌 젊은이가 1등 기념으로 각 테이블마다 양주 1병씩을 놓려 무려 7백만원의 술값을 혼자 부담하는 호기를 년들에게 쫓겨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귀공자 같은 용모와 무스를 발라 넘긴 단정한 머리, 검은 정장 차림의 몸 좋은 오렌지족 빰치는 외모의 한 종업원은 "멤버십(회원권)이 없으면 나이나 행색을 살펴 일정 수준이 되어야 입장시킨다. 업소 이미지 관리를 위해 젊은 여자라도 미모가 빠지면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돌려보낸다. 이렇게 신분차별을 할수록 장사가 더 잘 된다. 물이 흐려졌다는 소문이 나돌면 그업소는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 말했다.

오렌지족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은 프라이드, 액셀, 중고 르망 등 주로 굴족이나 껑깡족들이 몰고 나오는 차를 부자비하게 긁어놓는 사건들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중형차 이상을 탈 형편이 못되면 압구정동에 오

경희속의 세계, 세계속의 경희

화의 추세는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을 서로 밀접하게 연결하여서 온 인류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묶어 놓은 셈이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세계적인 전망을 바르게 갖지 않고는 자기 나라의 일은 물론이고 자신의 일까지도 제대로 대처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명명백백한 일로 되었다. 이것은 구한말의 선비들의 분담을 상기시켜 주는 문제이다. '선비는 모름지기 국사(國士)이어야 한다' '아니다. 선비는 모름지기 천하사(天下士)이어야 한다. 천하사가 되지 못한다면 국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다…' 날카로운 지성으로 닥쳐오는 근대의 물결을 바라보던 이들에게도 이 문제는 감지될 수 있는 심각한 것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지구공동체'니 '지구촌'이니하는 말이 생소하기는 커녕 거의 일상스럽게 생각한다. 필자는 이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차례 체험하였다. 십수년전 필자는 UNESCO 주최 '세계평화·인권교육'에 관한 회의에 한국을 대표해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 내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밖에는 없었다. 그 덕택에 그때도 한국에 관한 보고서를 제대로 쓸 수가 있었다. 불과 수년전에 일본의 모 사립대학교가 개교 백주년을 기념하는 초호화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주제를 '세계시민'이라고 내걸었는데, 늦게서야 경희대학교가 이미 '세계시민교과서'와 '부록본'까지 출판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이 대회에 가서 이런 업적이 나오게된 배경과 경위를 설명하고 많은 사람의 칭송과 부러움을 받을 수 있었다. 경희대학교는 최초로 '평화백과사전'을 편찬하여서 영국의 유명한 출판사가 이를 맡아서 출판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륜을 실현하여야하는 노전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한가지 만은 강조하고 싶다. 경희대학교는 우리 모두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 멸시나 기껏해야 동정을 받았던 암울했던 시기에 이런 높은 뜻을 갖고 이렇게 멀리보는 눈을 갖고 설립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야말로 다음 세기에 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 파부로 느끼게 닥쳐올 중대한 도전이다. 경희대학교는 설립자의 뜻과 추진력을 통하여서 이 도전에 부딪힐 올바른 원칙과 전망을 갖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높은 뜻을 갖고 시작하였다.

교시랍은 그저 서있는 장식물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씨름하는 문제들이 거기에 닿아 있는 것이다.

경희의 지성 속에 세계를 그리고 세계 속에 경희의 지성을 바로 세우자.

전 미 숙
(자유기고가)

강단시론

라 종 일
(정경대 교수·정치외교)

현대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세계의 세계지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첫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리부도에서 보는 것같은 지도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이와는 좀 다른 지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인지하고 있는 세계질서에 따르는 마음 속의 지도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거리가 더 멀리있는 구라파나 미국과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게 느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이치로 어떤 지역은 세계의 중심부로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주변부로 생각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물론 순수한 지리적인 개념만을 아니다. 끝으로 정치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구상에 맞는 또 하나의 세계지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라파에서 시작된 근대화된 상용어처럼 되고 말았다. 그러나 불과 20여년 전만해도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감촉되지 않는 말이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난 20년의 기간이야말로 우리들의 해외활동과 접촉의 폭이 비약적으로 확대된 시기이었기 때문이다. 70년대만 해도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된 사람들에게 국한된 '특수한' 경험이었다. 그 시기부터 우리들은 매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셈인데,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생활의 양식이 국제적으로 된 것인 반면에, 우리는 세계적인 전망이나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세계 내에서 우리의 정체를 확립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서는 거의 제대로 준비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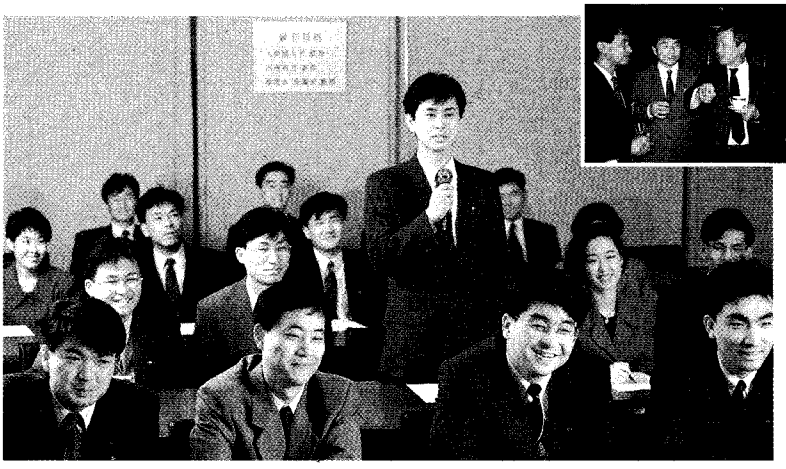
필자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시야에 관한 이해가 거의 없을 당시부터 우리 경희대학교가 특이하고 유일하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매우 자랑거리의 모든 전문가들이 UN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에 'UN을 통한 세계평화'를 주창했다.

이 모든 일은 현총장이신 조영식박사께서 생각하시고 주도하신 일이다. 그러나 오해가 없기 바란다. 이 글은 어느 한 개인을 찬양하거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런 목적과 취지로 해온 일들을 모두 미화하거나 자축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남보다 먼저 생각을 하고 몇가지 업적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축하하고 있는 것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또한 이제까지 해온 이들이 모두 훌륭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바로잡고 개선할 일들도 많을 것이다. 정작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세계의 세계지도를 제대로 갖추고 그 구상에 맞는 뜻을 세계에 펴서 인류사회에 한 민족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회장과의 대화)

신입사원들을 소중 경영자로 인정하고 경영방침을 묻은 회장의 개인 신상에 이르기까지 회장 자신이 직접 대담에 임하는 회장과의 대화. 75년부터 신입사원 연수의 한 과정으로 시작되어온 이 프로그램은 회장과의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대화의 장으로 신입사원들의 입체감을 제고시키는 건강인의 독특한 기업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제 결혼식 주례를 회장님께서 직접 서주실 수 있으신지요?"



휴식시간중 신입사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최종현 회장

신입사원과 회장의 진솔한 만남의 장(場) — 회장과의 대화

아차산 기슭에 자리잡은 선경 연수원 101호.
직장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선경인들은 이곳에서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회장과의 대화. 바로 풋내기 신입사원들이 경영의 대선배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통일에 대비한 그룹 차원의 경영전략.
올바른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한 방안.
6시간이 넘도록 계속되는 이 시간에는 중역들의 경영회의에서나 나올법한 진지한 이야기들이 오가지만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나온 이들의 당찬 질문입니다.

"제 결혼식 주례를 직접 서주실 수 있으신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가장으로서의 점수는 몇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쯤되면 기침없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던 회장도 어려운 시험문제를 받아든 학생처럼 난감해 하지만 이내 웃음 띤 얼굴로 질문에 응하는 모습은 정겹게만 느껴집니다.
쉬는 시간에도 다가와 말문을 열게 만들어 잠시의 휴식마저 빼앗아가는 신입사원들. 이들을 볼 때마다 기업 경영의 새 활력을 찾게 된다며 기꺼이 대해주는 회장의 모습에서 신입사원들은 믿음직한 선배 경영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SUNKYONG
鮮京그룹